

# 케뱅 '대출 올스톱'... 어설픈 행정이 부른 초유의 사태



현장에서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재개 시기도 '미지수'... 공지 안해  
은산분리규제 완화 전 무리한 인가  
불가피한 새 투자자 영입도 빨간불

케뱅크가 대출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영업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개는 언제 가능할 지도 공지하지 않았다.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위기상

황도 아닌데 은행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중단했다. 시중은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업범위를 제한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라고 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1일 케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슬림K 신용대출'과 '일반가계신용대출'의 판매를 중단했다.

케뱅크의 대출상품은 판매 중단이 공지된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을 비롯해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

K 신용대출' 등 5가지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 같은 달 19일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의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자본이 확충되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 놓은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출시도 못하고 있다.

케뱅크의 자본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영업 시작 초기부터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지만 대출 전면 중단이 선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달 27일까지 마무리돼야 했던 412억원 규모의 브릿지 증자가 이달 12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다.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필요할 경우 납입일을 이달 말일로 바

꿀 수 있도록 해왔다. 1금융권에서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사실 어설픈 행정에서 시작됐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인터넷은행이 탄생하려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자본 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필수였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자 일단 인가부터 내줬던 것이 발단이다. 법 통과에 앞서 무리한 인가를 내주면서 인터넷은행 후보군에게는 설명회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다"고,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에게는 "시범 운영"이라는 말로 일단 넘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꼬인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법 통과만을 위해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한 탓이다. 법개정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KT가 케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자본 확충 또한 멀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차라리 이전에는 법만 통과되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젠 현행법에 확실하게 어긋난다"며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의 결단이나 새로운 투자자 영입이 최우선인데 반복되는 대출 중단과 악화된 자산건전성으로 유인책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mahn1@metroseoul.co.kr

## 온라인 쇼핑, 해외 사용 최적화 'V3'

삼성카드 혜택·선호 업종 직접 선택



삼성카드가 숫자카드의 세 번째 버전인 'V3' (사진)을 선보였다. 이 카드는 빅데이터 기반의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찾아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카드를 새롭게 구성했다.

1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숫자카드 V3는 상품별 주요 라이프스타일을 5가지로 구분하고 상품 혜택을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할인형으로 구성했다. 고객이 직접 선호 업종이나 혜택을 선택해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형서비스 '나의 선택할인'도 도입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과 해외소비에 대한 혜택을 전체 상품에 반영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2 V3'는 20~30대 젊은 세대와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이다. 이 카드의 혜택은 크게 기본서비스, 옵션서비스, 선택형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서비스로는 ▲대중교통·택시 10% 할인▲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커피전문점 10% 할인▲해외 1.5% 할인▲영화 5000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옵션서비스로 두 가지 라이프스타일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옵션 1은 ▲온라인쇼핑몰·슈퍼마켓 5% 할인 ▲편의점·배달앱(애플리케이션) 5% 할인으로 구성돼 있다. 옵션 2는 온라인쇼핑몰·트렌디패션 5% 할인▲헬스&뷰티스토어·제과점 5% 할인 등이다.

선택형서비스 '나의 선택할인'은 주유·피자전문점·생합잡화·카셰어링 중 원하는 업종 1가지를 선택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옵션서비스와 선택형서비스는 고객이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매월 변경할 수 있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김희주 기자 hj89@

## "그룹사 시너지 제고" 우리금융, 조직개편

4대 사업 통합한 '사업총괄제' 시행  
연금기획부·자금세탁방지팀 신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별로 운영 중인 자산관리(WM)·글로벌·기업투자금융(CIB)·디지털 부문 등 4대 성장동력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총괄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연금기획부를 신설하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자금세탁방지팀도 신설했다.

WM총괄(산하 WM기획부 신설)은 그룹 자산관리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그룹 차원의 경쟁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총괄(산하 글로벌기획부 신설)은 일원화된 그룹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그룹으로서 그룹사간 동반 해외 진출 및 협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CIB총괄(산하 CIB기획부 신설)은 은행과 증권 간 기존 CIB부문 협



서울 우리은행 본점.

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룹 차원에서 CIB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디지털총괄(산하 디지털혁신부 확대 재편)은 그룹 디지털역량 강화 및 비대면채널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디지털혁신부 내에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디노랩)을 운영해 그룹 관점에서 핀

테크 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기획총괄 산하에는 퇴직연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금기획부를 신설해 고객수익률 중심의 퇴직연금 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확대될 그룹 사인증권·보험업의 퇴직연금사업자 편입에 대비해 사업총괄 체계를 사전에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그룹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통한 일관된 정책 수행을 위해 준법지원부 산하 자금세탁방지팀도 신설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책임경영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에 대비한 그룹사간 협업체계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며 "그룹사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기 기자 hong93@

##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앱서 환전하면 혜택"

NH농협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두 달간 '뚝딱! 여름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또는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1000명에게 제공한다.

또 동일 기간 내 농협은행을 '해외체재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송금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NH 멤버스포인트 5만점도 증정한다.

올원뱅크 앱의 '알뜰!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일 미화 2000달러 상당액 이내에서 주요통화(USD, JPY, EUR)는 90%, 기타통화는 40% 우대환율을 제공한다.

환전고객 또는 영업점에서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는 ▲농협몰 3000원 할인



▲와이파이도시락(포켓와이파이) 15% 할인 ▲공항철도 직통열차 1500원 할인 ▲수하물 보관서비스 10% 할인의 다양한 제휴서비스 혜택도 주어진다.

농협은행 김묘영 외환사업부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이번 이벤트가 환율우대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KB금융, 앱으로 4개 계열사 신용대출 한 눈에

통합 플랫폼 'KB 이지 대출' 선보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KB캐피탈·KB저축은행 등 주요 4개 계열사 통합 신용대출 플랫폼인 'KB 이지(Easy)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대출상품 한도와 금리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최적 상품을 추천 받아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KB 이지대출은 KB금융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Mate)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KB 이지대출 메뉴에서 4개 계열사 전부 또는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하고 대출 희망금액 등을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소득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대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가능여부 심사까지 완료된다.

간편한 프로세스를 통해 각 계열사별 최적대출한도와 금리뿐만 아니라 개인별 최대 대출 가능한도와 가중평균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한 계열사 채널을 통해 바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또 '대출진행상태 조회' 기능을 탑재해 리브메이트 앱에서 대출 조회·신청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보며 상담할 수 있는 화상상담 기능도 있는 등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KB 이지대출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인별 대출상품한도와 금리를 조회만 해도 각 계열사별 포인트 500포인트, 최대 2000포인트(4개 계열사 모두 조회시)를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 이지대출은 고객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은행을 포함한 4개 계열사의 저금리 대출부터 중금리 대출까지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조회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